

## 순천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 '순조'

순천시, 발효식품산업 연구개발·융복합산업화 위해 추진...올해 12월 착공 예정

2021년까지 국비 50억 포함 총사업비 100억 투입 승주읍 순천미생물센터와 연계

순천시가 발효식품산업 연구개발과 융복합산업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순천시는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발전을 선도할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15일 여론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발효식품분야 전문가, 관계기관 및 관련업체, 관심 있는 시민과 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관련사업 사례발표와 운영계획 보고 후 지원센터의 운영과 발전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제안과 토론이 진행됐다.

순천시는 지난 1월 8일 발효식품산업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고, 금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또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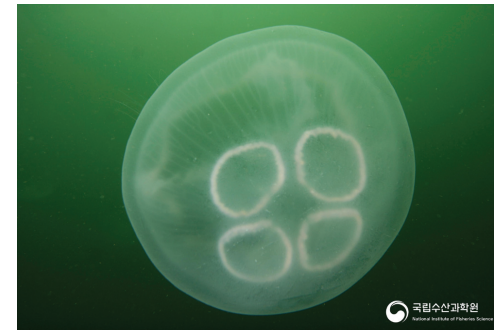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는 2021년까지 국비 50억을 포함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순천시 승주읍에 있는 순천시미생물센터와 연계해 남해안권을 아우르는 발효식품산업 연구개발 및 융복

합산업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생산 및 연구시설, 행정 및 기업지원시설, 창업보육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현재 공정설계 및 제품개발 용역과 건축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어 설계가 끝나는 대로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말 완공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순천 뿐 아니라 남해안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발효식품 상품개발, 기능성 분석, 공정 컨설팅, 마케팅 지원, 시제품 개발, 중소기업의 위탁생산, 창업지원 등 발효식품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보름달 물해파리. (해양수산부 제공)

### 전남 해역 해파리 주의보 해수부, 올 첫 특별 발령

보름달물해파리·노무라입깃해파리 출몰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16일 전남 득량만과 경남 남해 서측~거제시 동측 해역에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 특별보령, 전남·경남·제주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별보령을 각각 발령했다고 밝혔다.

주의단계 발령기준은 보름달물해파리의 경우 100㎡당 5개체, 노무라입깃해파리는 같은 면적 당 1개체 이상이다.

같은 해에 보름달물해파리와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별보령이 함께 발령된 것은 2016년 이후 4년 만이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독성은 약하지만 조업 시 어구 손실 등을 일으킨다. 특히 여름철 일조량의 증가와 기온 상승으로 연안 해역의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해파리 성장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남 고성만과 자라만, 마산만, 행암만, 전남 득량만 등 일부 해역에 국지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해안 우심해역에서는 해파리 대량 발생이 예상된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해 해류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파리다. 지난 5월부터 동중국해에서 출현하기 시작해 현재 제주~남해안 해역에 대량의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출현했다.

이번 주 이후에도 지속적인 남풍계열 바람과 강한 대마난류의 영향으로 전남·경남 연안까지 유입·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주의단계 특별보령과 함께 수산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해파리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보령한 해역에 해파리 집단망을 부착한 지역 어선을 투입해 해파리를 제거할 예정이다.

김민정 기자

### 총선 '싸늘이' 광주·전남 상임위 간사만 2명 '찬밥'

'3선' 이개호 농해수위원장 무산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광주·전남 18개 지역구를 모두 석권했지만 정작 상임위원회 구성에서는 '찬밥' 신세가 됐다.

국회는 15일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회 중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당초 지역정가에서는 광주전남 의원 가운데 3선의 이개호 의원(당양·함평·영광·장성)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기대됐다.

통상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의 의원 가운데 나이, 경력 등을 안배해 당에서 지명하는 점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냈고 20대 국회 전·후반기 내내 농해수위에서 활동한 이 의원의 낙점이 예상됐다.

하지만 국회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야당 몫으로 정리되면서 이 의원의 상임위원장 선출은 불발됐다.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소집이 오는 19일 예정돼 있으나 3선 이상의 대선 의원이 없는 광주전남에서는 추가 상임위원장 선출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재선의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과 송갑석 의원(광주 서갑)이 각각 농해수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선정되는데 만족해야 했다.

김윤호 기자



#### 초록세상

장맛비가 완전히 물러난 지난 15일 전남 강진군 강진읍 '강진만생태공원' 갈대밭이 청명한 날씨 속에 초록빛을 더해 시원한 여름 경치를 보여주고 있다.

### 광주 마지막 코로나 환자 2명 격리해제...2월 이후 32명 전원 완치

광주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이 모두 퇴원과 함께 격리해제됐다. 이에 따라 현재 광주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가 단 한명도 없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광주 31번, 32번 확진자가 퇴원과 함께 격리해제됐다.

병원 측은 이들의 증상이 호전되자 24시간 간격으로 실시간 유전자 증폭(RT-PCR) 검사를 했고 2회 연속 음성 판정이 나와 완치판정을 내렸다.

이들은 해외에서 귀국한 후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각각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아왔다.

이들이 퇴원하면서 광주지역 확진자는 0명이 됐다.

광주에서는 지난 2월부터 총 3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모두 완치돼 퇴원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중 2명이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고 18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 황토깡벌에서 자라는 농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